

對共產圈 교역현황과 전망

I. 머리말

對共產圈 교역확대는 무역이익의 획득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남북통일의 기반이 될 긍정적 국제환경의 조성이라는 정치적 측면의 양면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부·기업이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진다. 특히 '80년 이후 대두된 서방 선진국의 保護貿易政策과 시장개방 압력, 각종 수입규제 조치는 한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장의 개척 및 자원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데탕트 추세에 따른 서구와 蘇·東歐圈의 경제협력 강화, 중·소 경제교류 증대와 EC의 域內 시장 통합등 우리의 새로운 경제·외교정책 정립을 요망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는 共產圈國家들은 한국 경제력의 증대 및 정부·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하여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다가 점차 對韓교역에 따른 국가적 이익이 이데올로기보다 중요함을 깨닫고 실리추구의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한국의 대공산권 교역은 과거와는 다른 좋은 환경하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교역방식도 간접무역에서 직접무역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산업 각 분야에서 합작투자 상담도 진행중에 있다.

본문의 목적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對共產圈교역현황을 파악하고 그 전망을 예상해 보는데 있다.

II. 共產圈 국가의 對韓시각 전환

共產圈국가들의 對韓交易 확대의지는 곧 그들의 과거 한국에 대한 시각내지 평가의 전환을 의미하며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60년대 한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였고, 이러한 경제력의 향상이 공산권 국가들의 對韓 관념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둘째, 한국 정부는 北方정책의 천명과 아울러 제반 부수적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왔고 기업들은 대공산권 교역 증대를 위해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세째, 올림픽 개최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네째,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발전

의 둔화 및 침체, 인플레이, 외채격증 현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경제난 타개·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권력유지의 방안으로 새로운 문제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놓여 있으며,

다섯째, 美·蘇 및 中·蘇 화해무드 등 국제정치 환경의 데탕트 추세에 부응하는 일면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본다면 교역 확대의 필요성은 한국측보다는 오히려 공산권 국가에 더 많다고 할 수 있으며 중요한 원인은 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개혁정책의 수행이 원만치 못함에 있다. 공산권 국가의 대한 교역확대의 國內經濟的 背景은 국가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中 國

中國은 1978년 이후 혁신적이며 지속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외국으로부터의 資本·技術·經營管理技術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주요 대상국이라 할 수 있는 美·日 등 서구로부터는 그 실적이 부진한 편이었다.

中國은 그동안 서구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적 경제운용 방식과 시장경제체제를 과감히 도입하였고, 『특색있는 中國式 社會主義』, 『社會主義 初級段階 理論』, 『國際大循環戰略』 등의 논리를 주장하여 개방정책의 이론적·정책적·전략적 기초를 확립하는데 주력해왔다. 한편 실제적으로는 經濟特區, 연안개방도시, 경제개방구 등을 선정하여 외국 투자자들에게의 많은 특혜를 부여해 왔다.

中國은 이러한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성공적일 경우에 산업면으로는 경공업, 중공업, 농업순으로의 발전을, 지역적으로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개방지역에서 주변 도시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점차적인 지역의 확대를 시도하여 전국적인 과급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들은 주로 중국 자신의 수많은 문제들 즉 산업기초시설의 미비, 低生産性, 관료주의, 原資材 공급의 불확실성, 부자유스러운 과실송금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中國은 자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 대만등 유사한 경제발전 과정을 거쳤으면서 자본, 중간급 기술, 경험, 대중국 진출의 적극적의도를 가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중국 경제 발전에 보다

큰 역할을 하리라는 인식을 하게된 것이다. 중국의 대한 교역 및 經協擴大 의지는 여기서 비롯되었으며 그후 대한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 蘇 聯

蘇聯은 '50년대까지만해도 연 평균 5%내외의 고도 성장을 달성해 왔으나 그 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수 차례의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몹시 미흡하였다. 이에따라 경제발전 둔화 및 저생산성 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된 개방의 제한성이나 고질적인 관료주의의 병폐가 항상 논쟁의 쟁점이 되어왔지만 권력의 집행자들은 본질적이며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 접근은 하지 못하였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표현되는 과감한 경제 개혁 및 대외개방과 함께 政治的 改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비교적 문제해결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

對外경제 개방과 對內경제 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는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사고」에 의한 정책으로 현재 소련은 농업 생산에의 인센티브 부여, 산업간 균형발전 도모, 국내산업부문에 시장경제적 요소의 적극 도입, 국내 수요를 감안한 수입정책과 외환 확보를 위한 수출상여금 제도등 다양한 수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合作企業法』의 제정, GATT등 국제경제기구에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것은 아시아·太平洋地域의 중시이다. 소련 당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시 경향은 시베리아 및 極東地域의 개발을 통해 소련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자금·자원의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들의 對美偏向 자세를 완화하여 이 지역에 소련의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포함되어 있다.

소련의 亞·太지역 국가와의 경제관계 증진노력은 '86년 7월의 『블라디보스톡선언』과 '88년 3월 『亞細亞太平洋地域 경제협력 위원회』의 신설 및 '88년 9월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제』에서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제안들은 태평양 연안국들의 對蘇 진출 의욕을 고무시키고 있다.

對韓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성향을 띠고 있으며 다만, 북한을 의식하여 간접교역을 희망하고 있으며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에는 제 3국과의 컨소시움을 통

한 합작투자를 보다 환영하는 입장이다.

3. 東歐圈

'50년대부터 유고를 비롯한 일부동구권 국가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개혁의 불가피성이 대두되어 시장경제적 재반 메카니즘 및 요소를 도입한 경제개혁이 추진 되어왔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따라 주변 동구권 국가들도 경제 개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効率」보다 「平衡」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의 체제 내적 문제는 발전속도를 제한하였고 개혁자체가 부분적이고 자력갱생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제·산업은 불균형 성장과 量的 한계의 현상을 노출하였다.

경제성장은 누적된 국내 경제문제와 함께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 '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둔화·정체되기 시작했으며 뒤이은 격심한 인플레이션, 외채 누증 및 고질적인 저생산성 등으로 '80년대 들어 심한 경제적 곤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구권 국가들에 있어서 경제난은 곧 권력유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권자들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미·소의 화해와 소련의 개혁·개방정책 표방등 경직된 국제정세가 완화되면서 동구권 국가들은自救策 모색과 함께 소련에 통제완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적극적인 대서방 접근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EC와의 협력협정서 조인 및 개별협정 추진, 『합작법』 제정 등 대서방 경협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시도되었고 대서방 교역증대와 관련된 法規의 정비, 이윤 송금의 완화 및 합작기업에 대한 기타 優待措置 등을 고려중이거나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소생을 위한 對西方經協강화노력은 빈·프랑크푸르트 등을 거점으로 소량의 간접교역을 진행해오면서 시장 확대에 부심해오던 한국 기업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對韓 정책은 동구권 국가들도 소련과 마찬가지로 복한을 의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 소련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특히 헝가리와의 상호 常駐代表部 설치('88.9)는 여타 국가들에 전례를 만들으로써 향후 동구권 국가들의 대한 교역 증진을 촉진시킬 것이다.

Ⅲ. 交易현황

〈表-1〉 中國의 경제현황

	금 액				연 평 균 증 가 율(%)		
	1952	1978	1986	1987	1952-1987	1952-1978	1978-1987
국 민 소 득 (億 元)	589	3,010	7,790	9,153	8.2	6.5	13.2
1인당국민소득(元)	104	315	740	-	5.9 ^a	4.4	11.3 ^a
사회총생산액(億元)	1,015	6,846	18,961	-	8.7 ^a	7.6	13.6 ^a
농업총생산액(%)	461	1,567	4,013	4,447	6.7	4.8	12.3
공업총생산액(%)	349	4,067	11,194	13,780	11.1	9.9	14.5
경공업총생산액(%)	225	1,753	5,324	6,560	10.1	8.2	15.8
중공업총생산액(%)	124	2,314	5,833	7,220	12.3	11.9	13.5
총 무역액(억 달러)	19.4	206.4	738	827	11.3	9.5	16.7
수출액(%)	8.2	97.5	309	395	11.7	10.0	16.8
수입액(%)	11.2	108.9	429	432	11.0	9.1	16.5

('87년말 US 1\$:3.72元, '86국민총생산 9,380억元, '87국민총생산 10,800억元)

(주) a '86년을 기준으로한 수치

매년 목표 수치를 초과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전의 1990, 2000년 목표는 의미가 없음.

사회총생산액은 '85년부터 국민총생산기념으로 환산 발표'

(자료) 中國 經濟年鑑, 中國統計年鑑, 國家統計局 발표

1. 共産圈 국가의 경제현황

(1) 中 國

중국경제는 1978년 4개 현대화계획을 추진한 이래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87년 실적은 '78년에 비해 국민소득, 농업 總生産額, 工業 總生産額이 각 약 3배, 총무역액은 약 4배의 성장을 이룩했다. 급속히 진행되어온 개혁정책의 성과는 연평균증가율로 판단하면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다. '78년이전까지의 증가율은 중국이 중점을 두었던 重工業부문을 제외하고 10% 미만인데 반해 '78년 이후는 국민소득, 1인당국민소득, 사회총생산액, 농업총생산액, 농업총생산액 경공업총생산액 등 모든 부문에서 10%를 훨씬 초과하고 1952~78년에 비해 2~3배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87년의 실적을 보면 GNP 실질성장율이 9.4%를 기록하였고 생산·소비·유통·투자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다. 개방정책의 지속으로 대외무역과 외화 및 기술도입도 비교적 순조로워 전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이 있었다. 반면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상품 수요가 증대되었고 투자의 확대, 무역 및 외자도입의 증가로 통화량이 증가되면서 '85년이후 현재까지 급격한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제개혁 정책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 되었으며, 그 결과 금년 9월 경제정책결정의 주도권이 혁신적인 개혁정책을 주장하던 「趙紫陽」黨總書記로부터 보수적 개혁파인 「李鵬」總理에게로 넘겨졌고 정책방향도 고도성장 보다는 안정성장쪽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투자의 축소등 각종 통화량증가 억제책을 실시하여도 탄력이 붙은 경제여건

은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은 화학비료 등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生産責任制의 확대 실시, 자유시장의 발전으로 '87년 4.7%의 실질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공업은 개혁정책실시이래 대폭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는데, '87년 총 생산규모로 16.5%의 실질적인 성장이 있었던 바, 특히 높은 성장을 시현한 부문은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류와 에틸렌 등 화학제품류이다. 대외무역은 전년비 12.1%가 증가된 827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수입 증가율은 '85년이래 대폭적인 무역수지 적자에 따라 각종 수입억제책을 실시하므로써 전년비 0.7%에 그쳤고 적자규모는 상당히 축소된 37억

〈表-2〉 中國 소매물가지수추이

(전년도 가격:100)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1~6)
소매물가지수	101.5	102.8	108.8	106.0	107.3	119.0

〈자료〉 中國 國家統計局, 人民日報

달러에 그쳤다. 무역적자는 原油價格의 하락, 기업의 투자 및 민간 소비수요의 증대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外資는 75.7억달러가 도입되었고 기술도입은 561건에 28.6억달러가 계약되었다.

(2) 蘇 聯

고르바초프가 주도하고 있는 소련의 경제개혁은 기존 경제체제내에 市場·경쟁적요소를 도입하여 低成長국면에 놓여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므로써 21세기 이전까지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소련의 '

〈表-3〉 蘇 聯 經 濟 現 況

	단 위	1983	1984	1985	1986	1987
실 질 N M P 성 장 율	%	3.3	2.7	3.7	4.1	2.3
1 인 당 N M P	달러	2,720	2,543	2,495	3,069	-
공 업 총 생 산 증 가 율	%	-	4.0	3.9	4.9	3.8
농 업 총 생 산 증 가 율	%	-	0.0	-	5.1	1.0
총 무 역 액	억달러	1,712	1,672.8	1,708.6	1,695.6	1,862.5
수 출 (F O B)	"	910	913.7	909.4	867.1	973.2
수 입 (F O B)	"	802	759.1	799.2	828.5	890.3

〈주〉 '88. 2월, US 1\$:0.655 Ruble

〈자료〉 Narodnoe Khozaysrto SSSR, USSR Economic Handbook, Pravda

〈表-4〉 國別 對蘇 합작투자현황(1987. 1-1988. 3)

국 별	件 數	국 별	件 數	국 별	件 數	국 별	件 數
西 獨	8	프 랑 스	3*	미 국	2	스 웨 덴	1
핀 란 드	4	日 本	2	英 國	1	(유 고 슬 라 비 아)	(1)
(헝 가 리)	(4)	스 위 스	2	리 히 텐 슈타인	1	(인 도)	(1)
이 탈 리 아	4*	오 스트 리 아	2	스 페 인	1	計	36(6)

(주) * 이탈리아, 프랑스기업 공동합작투자가 1건 포함됨.

() 속은 서방국가 이외의 국가

〈자료〉 Business Eastern Europe, 1988. 4. 25

60년대 경제는 주로 농업부문의 호조로 연평균 약 5%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였으나 '70년대와 '80년대 초에는 주로 국내경제적 요인으로 성장율이 저하되어 2% 내외의 성장율을 기록하였다.

'85년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소련 경제의 소생을 위해 농업부문의 인센티브 부여, 공업부문의 투자증대, 균형성장추진 및 貨金 차등제 실시 등 개혁을 단행하여 경제는 '85년 3.7%, '86년 4.1%의 고성장을 달성하였다. '87년에는 한발등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부진으로 2.3%의 낮은 성장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개혁의 한계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주로 집단농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생산은 총생산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련경제의 「아킬레스踵」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의 여부는 농업부문에 달려있다. 따라서 과거 20여년간 매년 총투자의 약 25%를 관개·배수등에 안배하여 작황 증대를 위한 시도를 위한 해 왔지만 저장시설의 부족, 이상기온으로 인해 오히려 다량의 곡물을 미국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공업 특히 重工業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왔던 소련은 '80년대들어서는 소비재산업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자원확보를 위해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광물 등 자원 생산에도 주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금년 1/4분기에 공업부문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5.4% 증가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건설부문이 8.9%, 기계제작부문이 9.1%의 놀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무역규모는 '80년대 들어 동구제국간의 교역이 확대되고 동서의 화해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85, '86년은 국제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수입은 경제개혁에

따른 소비재 및 기계분야의 수입증가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出超를 보이고 있으며 主要輸出品은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철강제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 수송장비, 식품, 금속 등이다.

天然資源의 가공수출, 국내시장 개발, 硬化收入을 위하여 최근 중시되고 있는 합작투자는 '87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36건이 계약되었으며, 주대상국은 서방국이다.

〈表-5〉 서방기업의 투자규모별 對蘇合作투자현황

구 분	件 數
100만루블 미만	8
100만 - 500만루블	11
500만 - 1,000만루블	3
1,000만 - 2,000만루블	6
2,000만 - 5,000만루블	2

〈자료〉 표4와 동일

〈表-6〉 蘇聯經濟에서 시베리아·極東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1965	1970	1975	1980
사 회 총 생 산	8.1	8.5	9.1	9.5
국 민 총 소 득	7.5	9.1	10.0	10.5
공 업 총 생 산	8.1	8.4	9.0	9.2
자 본 투 자	10.0	11.0	12.0	15.0
공 업 고 정 자 본	10.5	11.0	11.5	12-13
건 설	12.2	12.2	13.2	14-15
운 입	13.7	14.2	15.7	17-18

〈자료〉 USSR Economic Handbook

국별로는 자본이 풍부하고 소련의 자원개발에 흥미를 갖고 있는 西獨이 8건으로 제일 많으며, 투자규모별로는 백만에서 5백만루블사이의 투자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경제 개혁에서 소련이 특히 중시하는 분야는 시베리아·極東 지역의 개발이다.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은 소련면적의 57%와 인구의 11%를 차지하며 광물·삼림 및 수산자원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시베리아의 개발은 장기적관점에서 소련경제발전의 관건이며 고르바초프 개혁정책의 성패를 결정하고 또한 정치·군사·외교적 측면의 중요성을 가진다. 이에따라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선언, 크라스노야르스크제의, 亞太經濟協力委員會 설립, 경제특구 설립 검토 등을 발표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경험을 통해 경제적 이익은 물론 정치적 이익까지 얻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고르바초프는 농공부문의 管理機構改革('85.6), 合作投資法('86.12), 國營企業法('87.7) 등의 일련의 법규제정으로 제도적인 면의 개혁이 일단락되었다고 판단하고 개혁의 방향을 점차 정치·사회분야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으며 금년 6월과 9월에는 개혁에 장애가 되는 반대세

력의 주동자들을 제거하여 개혁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국내적 기반을 다지므로써 경제개혁은 더욱 강력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東歐圈

동구권 국가들은 '70년대에 이미 서방측으로 부터의 외자도입과 이를 이용한 施設材 수입을 통해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유가파동에 따른 세계경제침체로 실패로 돌아갔고 '80년대 들어서는 누적된 外債,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에따라 '82년부터 '84년까지 극도의 수입 억제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시설투자의 부진과 생산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부진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전반적으로 볼 때 농업생산의 침체, 국제경쟁력 없는 제품의 생산 및 기술격차, 타성에 젖은 노동력 등이 동구권 경제를 악화시킨 것이다.

이같은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85년이후 소련의 개혁정책에 편승, 독자적인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기로

〈表-7〉 東歐圈 國家의 경제현황('87년)

	폴란드	東 獨	헝가리	유 고	체 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G N P (억 달 러)	2,500	1,875	840	1,450	1,439	1,375	612
1 인 당 G N P (달 러)	6,930	11,300	7,920	6,220	9,280	6,030	6,800
인 구 (만 명)	3,760	1,660	1,060	2,340	1,560	2,301	897
실 질 경 제 성 장 륜 (%)	2.0	4.0	2.3	0.5	2.0	4.8	5.1
對 西 方 수 출 (억 달 러)	50	86	35	57	36	37	11
對 西 方 수 입 (억 달 러)	43	88	41	71	41	14	24
경 상 수 지 (억 달 러)	△4	2	△9	11	△2	19	△5
외 환 보 유 액 (억 달 러)	15	82	23	7	13	*	12
총 외 채 (억 달 러)	392	168	177	195	47	57	62
소 비 자 · 물 가 상 승 륜 (%)	26.0	*	8.6	118.0	0.2	0.4	*

(주) GNP와 1인당 GNP는 '86년 통계임.

*는 통계입수불가 표시임.

〈자료〉 KOTRA

〈表-8〉 東歐諸國의 合作企業數('88. 7)

	불가리아	체 코	東 獨	헝 가 리	폴 란 드	루마니아	유 고	計
건 수	15	2	-	110	13	5	250	395

〈자료〉 일본경제신문

결정하고 市場經濟體制 導入, 중앙정부의 經濟計劃機能 축소, 수입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투자 제원의 조달방식도 '70년대의 借款導入 방식에서 합작투자 유치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외채 증가의 억제와 함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소련이외의 동구제국들은 경제력 시련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개방정책으로 일부 敎條的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경제력이 앞서고 있다.

'87년의 경제 성장율은 불가리아가 5.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헝가리가 2%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전년에 비해 성장율이 높았다. 동구제국의 전체적인 성장율은 '86년 4.2%에서 '87년 2.5%로 저하되었으며 경상수지는(소련포함) '86년 28억달러 적자에서 '87년 17억달러 흑자로 반전하였다. 그러나 外債額은 특히 유럽통화의 對달러화에 대한 강세로 오히려 100억달러가 늘어난 1,430억달러(소련포함)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인 공업신장율은 '86년 4.7%에서 '87년 이를 하회한 3.6%의 증가세에 그쳤는데 부진한 산업은 철강, 식품, 건설, 섬유업종

이며 전자부문은 투자증대 및 생산재 우선 배정으로 급신장한 업종이다. 한편 동구권 전체의 수출은 전년비 9%, 수입은 6.7% 증가하였다. 합작투자는 외화획득, 기술습득, 고용증대의 방편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合作企業法」을 제정하고 세계상의 각종 우대조치를 실시하여 적극 유치하고 있는데 '88년 7월 현재 모두 395개로서 유교가 250개, 헝가리가 110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항목은 금융,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다. 동독은 아직 합작기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對共產圈 교역현황

韓國의 대공산권 교역은 작년까지 대부분 일본·홍콩 등지를 통한 간접교역 방식에 의존해 왔고 따라서 교역량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금년 3월 헝가리와 양국에 貿易事務所를 설치하고 9월 常駐代表部설치에 대한 협정을 맺음으로써 대공산권 직접 교역의 획기적인 초석이 마련되었고 그 여파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 영향을 미쳐 유고, 중국, 소련

〈表-9〉 對共產圈 交易現況

(단위:천달러)

	총 무역액			수출액			수입액		
	1986	1987	비중(%)	1986	1987	증감율	1986	1987	증감율
중 국	1,283,125	1,486,612	80.8	667,702	813,172	21.8	615,423	673,440	-56.3
베 트 남	61,486	52,273	2.8	38,798	42,368	9.2	22,688	9,905	9.4
라 오 스	234	91	0.0	234	91	-61.1	-	-	-
캄보디아	44	1,450	0.1	44	1,450	3,195.5	-	-	-
쿠 바	1,813	-	-	351	-	-	1,462	-	-
유 고	9,878	16,158	0.9	9,668	15,982	65.3	210	176	-16.2
소 련	113,779	164,233	8.9	49,895	67,231	34.7	63,884	97,002	51.8
東 獨	21,612	41,615	2.3	21,235	37,566	76.9	377	4,049	974.0
폴 란 드	24,567	22,822	1.2	18,986	20,898	10.1	5,581	1,924	-65.5
체 코	8,667	11,084	0.6	7,090	8,556	20.7	1,577	2,528	60.3
헝 가 리	8,691	18,139	1.0	7,316	14,985	104.8	1,375	3,154	129.4
루마니아	2,152	19,932	1.1	2,152	3,084	43.3	-	16,848	-
불가리아	1,724	1,449	0.1	1,092	1,281	17.3	632	218	-65.5
알바니아	-	-	-	-	-	-	-	-	-
기 타	918	2,837	0.2	884	2,837	220.9	34	-	-
計	1,538,690	1,838,745	100.0	825,447	1,029,501	24.7	713,243	809,244	13.5

(자료) 경제기획원

등으로 직접교류 관계가 확대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社會主義 國家圈에서 최대의 교역국인 中國은 '86년 83.4%, '87년 80.8%의 비중을 차지하고 蘇聯은 제 2교역국으로 '87년 8.9%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밖에는 東獨·폴란드의 순이었다. '87년의 경우 대동구권수출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105% 증가한 헝가리였으며 폴란드는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7년 수입액은 동독으로부터의 수입이 9.8배의 신장율을 기록했고 폴란드는 65.5%의 감소가 있었다. 國別 交易 狀況은 <表-9>와 같다.

(1) 中國

韓·中교역은 중국이 四個現代化 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한 다음해인 '79년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79년 약 천9백만 달러의 무역량이 '87년 약 14억8천7백만 달러로 증가하여 8년간 약 78배의 급격한 신장율을 기록

했다. 한편 이기간중 '82년과 '83년의 교역량은 국제수지상의 문제와 北韓의 항의로 인하여 대폭 감소하였으며 무역수지는 한국이 '80~'81년, '85~'87년 出超를 시현하여 8년간 약 2억6천9백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87년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구성을 보면 수출면에서 철강제품이 20.1%의 비중으로 가장 많고 TV부품류가 17.3%의 비중으로 제2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수입품목은 대체로 섬유류(원사·원면포함)와 석탄 및 사료원료로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蘇 聯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 추진 목적이 對外經協관계 확대에 있기때문에 소련의 對西方, 對開途國 교역 역시 확대 일로에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과거의 미국 종속국이 아닌 독립된 국가로서 또 기술·자본도입 및 상품 교류가 적당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表-10> 對中國 交易現況

(단위 : 백만달러)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총 액	18.8	187.9	352.8	128.8	133.9	461.6	1,291.8	1,395.5	1,486.6
수 출	4.0	115.0	205.0	48.0	51.3	229.0	682.8	715.0	813.2
수 입	14.8	72.9	147.8	80.8	82.6	232.6	609.0	680.5	673.4
무역수지	-10.8	42.1	57.2	-32.8	-31.3	-3.6	73.8	35.5	139.8

<자료> 경제기획원

<表-11> 對中國 主要 輸出入品目

('87, 단위 :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비 중		품 목	금 액	비 중	
총 계	813.2	100.0		총 계	673.4	100.0	
철강제품	163.5	20.1		인조섬유의 단섬유 웨이스트직물	92.1	13.7	
열전자관, 냉음극관, 광전관	140.4	17.3		석탄과 그 조제품	74.3	11.6	
인조섬유의 장섬유 직물	112.7	13.9		아마사와 라미사	69.1	10.3	
합성수지	63.2	7.8		식물성 유박	69.1	10.3	
비 료	51.9	6.4		원 면	66.7	9.9	
워딩과 그 제품	25.9	3.2		옥 수 수	25.9	3.8	
냉장고와 냉동기구	25.1	3.1		견 직 물	19.5	2.9	
소 계	582.7	71.8		소 계	416.7	62.5	

<자료> 경제기획원

〈表-12〉 對蘇聯 간접무역 현황

(’86, 단위:천달러)

	1984	1985	1986	1987	’88(1~3)
총액	57,246	122,003	113,779	164,233	37,391
수출	26,194	59,675	49,895	67,231	7,279
수입	31,052	62,328	63,884	97,002	30,112
무역수지	-4,858	-2,653	-13,989	-29,771	-22,833

〈자료〉 KOTRA

政·經분리정책을 추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韓·蘇 貿易도 수출량이 다소 감소했던 ’86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가일로에 있다. ’84년에 약 5천7백만 달러에 달했던 무역량은 ’87년 약 1억6천4백만달러로 3년간 2.9배의 신장율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한국이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84년 이후 금년 ¼분기까지 적자 총액은 7천4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輸出品의 80% 이상이 섬유제품이며 그밖에 내연기관, 신발 등이 수출되고 있다. 輸入品은 원자재류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석탄이 67%로 가장 많고 그 밖에 어류·암모니아류가 수입되고 있다.

(3) 東歐圈

작년까지 日本, 西獨 등을 통한 간접무역이 진행되어 온 한·동구제국의 무역은 오래전부터 양은 적으나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韓國과의 교역이 가장 많고 전년대비증가율이 높은 국가는(소련제외) 동독이며 그밖에 폴란드, 유고, 헝가리의 순으로 교역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다만 유고는 ’85년 9천백만달러에서 ’86년 8백만달러로 대폭 감소가 있었다. 주요 輸出品目は 섬유, 신발류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輸入品目は 석탄이 54.4%로 가장 비중이 크고 그밖에 대부분이 原資材類이다.

南·北韓의 교역은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에 힘입어 암중 모색하는 단계에 와있다. 북한의 대외 주요수출 품목은 鉛·亞鉛·마그네슘크링카 등 광물과 철강제품 및 쌀, 명태 등 농수산물이 주종이고 주요수입품목은 원유, 소맥, 기계류, 플랜트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87년의 수출액은 16억6천5백만달러 수입액은 23억9천5백만달러로 7억3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무역수지는 ’70~’84년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수출지역은 ’71년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국가의 비중이 84.8%, 15.2%에서 ’80년 52.9%, 47.1%로 자본국가와의 교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IV. 交易展望

지금까지 韓國의 대공산권교역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데올로기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 문제는 現今의 國際政治狀況에서는 이미 舊時代的인 논제

〈表-13〉 對蘇聯 主要 輸出入品目 構成比

(’86, 단위:천달러, %)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비 중	품 목	금액	비 중		
총 계	64.894	100.0	총 계	54,887	100.0		
내 의 류	11,796	18.2	어 류	10,457	19.1		
남자, 소년용 외의	28,207	43.5	석 탄	36,207	67.0		
여자, 소녀, 유아용 외의	7,486	11.5	암모니아수, 무수암모니아	2,720	5.2		
남자, 소년의 내의	4,940	7.6	스피그라이즌과 선철	1,353	2.5		
튜브, 파이프 등	2,474	3.8					
내연기관 피스톤엔진	3,726	5.7					
소 계	58,629	90.3	소 계	50,737	93.6		

(주) 수치는 자료의 출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료〉 세종연구소

〈表-14〉 對東歐圈 무역현황

(단위:천달러)

	총 무역액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85	1986	1985	1986	1985	1986	1985	1986
총 계	297,969	278,650	166,691	184,416	131,278	94,234	35,413	90,182
소련	132,204	141,232	69,876	64,894	62,328	76,338	7,548	-11,444
동독	27,179	98,478	23,137	90,130	4,042	8,348	19,095	81,782
폴란드	29,175	16,599	20,419	12,753	8,756	3,846	11,663	8,907
유고	91,157	7,954	50,851	6,937	40,306	1,017	10,545	5,920
체코	7,454	4,067	3,663	2,345	3,791	1,722	-128	623
헝가리	10,997	6,974	7,027	5,598	3,970	1,376	3,057	4,222
루마니아	8,544	2,641	1,600	1,701	6,944	940	-5,344	761
알바니아	19	-	19	-	-	-	-	-
불가리아	1,908	694	767	58	1,141	636	-374	-578

(주) 수치는 자료의 출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료〉 상공부.

이며 특히 中國의 경제개혁과 蘇聯의 개혁·개방 정책 및 韓國의 적극적인 北方政策은 이와같은 과거의 모든 장벽을 일시에 제거하였다.

대공산권 교역 규모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유외에도 공산권 국가의 심각한 경제상황, 동서 진영 간의 활발한 경제교류 시도, 공산권국가의 새로운 대한

인식, 한국 정부·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폭 신장 될 것으로 보인다.

한·헝가리의 常駐代表部 설치, 한·유고 貿易事務所 설치, 비록 지방 단위이긴 하지만 한·중간 貿易事務所 설치, 소련·체코의 무역사무소 설치 의도 및 韓國企業의 동구권내 支社·連絡事務所의 설치는 한·공산권 교

〈表-15〉 對東歐圈 주요수출입품목

(’86년, 단위:천달러)

품 목	수 출		품 목	수 입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여자용 및 유아용의류	46,840	25.4	석 탄	51,243	54.4
남자용 의류	39,449	21.4	어 류	10,547	11.2
남자용 내의류	38,911	21.2	금속가공기계	7,205	7.6
내 의 류	13,309	7.2	모 피	6,415	6.8
신 발 류	7,697	4.2	황 화 물	3,375	3.6
인 조 섬유	4,241	2.3	암 모 니 아 수	2,720	2.9
내 연 기 관	3,728	2.0	에 틸알콜	2,184	2.3
철 강	2,474	1.4	선 철	1,353	1.4
주 석 판	2,298	1.3	항 생 물 질	1,037	1.1
기 타	24,469	13.8	기 타	8,155	8.7
총 계	184,416	100.0	합 계	94,234	100.0

(주) 수치는 자료의 출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료〉 상공부.

역에 起爆制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올림픽 기간중 사회주의국가에 무형으로 보여준 한국경제의 현황이 그들의 대한 교역의지를 더욱 촉발할 것으로 보여지기때문에 장차의 교역량은 예상밖의 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역방식도 지금까지의 간접교역중심에서 '90년 을 전후에 완전히 직교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과정에서 공산권 국가들은 자국내외화부족으로 많은 경우에 求償貿易을 요구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연구와 경험이 크게 필요할 것이다.

최대의 교역국은 여전히 中國이 될 것이며 소련, 동독이 차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들어 헝가리·유고의 무역사무소개설·상주대표부 설치 및 韓國企業의 支社設置增加등 일련의 조치들로 보아 의외의 양적 증가를 수반할 수도 있을 것이다. 輸出有望品目은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섬유류, 산업용·가정용 전자제품, 전기기기, 철강, 선박기자재, 잡제품 등이 주종을 이룰 것이며 輸出有望品目은 석탄, 원유 등 에너지 관련품목 및 원목, 농수산물, 광물, 의약품, 화학제품, 기계류가 주종을 이룰 것이다. 공산권국가들은 한국에 대해 당초 상

품교류의 차원으로만 인식했었으나 최근에는 합작대상국으로도 생각하고 있으므로 점차 이 방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法規, 제도, 산업 下部構造 등에 많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각 상대국의 경제여건에 대한 深度있는 연구와 조심스러운 접근자세가 요망된다.

合作進出 有望業種은 건설·전자·경공업 등 고용효과가 크고 생필품 생산과 직결되는 분야와 광물·삼림·수산 등 자원개발 및 가공수출이 필요한 분야가 될 것이며 생산품은 대부분 內需보다는 수출에 주력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對北韓交易은 中·蘇의 對北韓 개방·개혁 압력 및 東北亞의 平和維持 입장, 北韓 자체의 經濟沈滯脫皮를 위한 자금 조달방법으로서의 輸出促進政策, 合營法 실시, 南浦 자유항 설치 계획 등 점진적인 對外開放의 性向, 우리의 對北韓 개방 노력에 따라 南·北 相互間의 이해의 폭이 점차 넓혀져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의외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대우경제연구소, 조사월보 88.10 월호>

□ 石油圖書案内 □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88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